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가이드답안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 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문학』 교과 (1)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 통합적 읽기’ 부분에서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살펴 보기 위해 활용한 「사랑의 역사」라는 읽기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사랑의 성격을 ‘준다’라는 요소 외에도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랑과 성의 관계’ 부분에서 ‘사랑과 성은 어떤 관계여야 할까’라는 논술 과제의 제시문으로 나온 「사랑의 기술」이라는 글을 참고하되, 실제 해당 부분이 수록된 『사랑의 기술』 원전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생전에 사랑했던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한 것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의 동반자들’ 부분에서 ‘문학, 그 인접 분야를 만나다’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활용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는 시나리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방민호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미래엔, 26~27쪽.
- [나] : 에리히 프롬(2019),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47~51쪽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70쪽 관련.
- [다] : 류수열 외(2019), 『고등학교 문학』, 금성출판사, 115쪽.

## □ 평가 기준

## 1)번 문항

## ○ 문항 해설 1 (5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사랑’이다.

##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사랑’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 문항 해설 2 (5점)

[가]는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에 대한 남녀의 기대가 달라서 동상이몽의 현상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자아를 찾고 확산하기 위해 사랑을 유용한 가치로 변모시키며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주의나 자기애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대와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 ◆ 채점 기준

-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2)번 문항

## ○ 문항 해설 1 (10점)

[나]는 사랑의 성격을 여러 가지 요소들로 설명하고 있다. 사랑의 성격은 ‘준다’라는 요소 외에도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호는 자식에 대한 모성애를 통해 쉽고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호는 책임이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책임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또한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하게 된다. 이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이 된다. 이해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제시문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다]는 생전에 애뜻하게 사랑했던 어느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하고 있다. 무덤가에서 할머니는 죽은 할아버지의 옷을 태우는데, 이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저세상에서도 깨끗이 잘 입고 다니기를 원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저세상에서 보고 싶더라도 잘 참아내기를 할아버지에게 당부하고 할머니 또한 그렇게 다짐한다. 그런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무덤을 떠날 때에는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어 결국은 주저앉아 슬퍼한다. 자신보다 먼저 죽은 할아버지가 몹시 불쌍하고 이제 세상에는 할아버지를 추억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기 때문이다. 생전에 열렬히 사랑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기에 생사의 이별 또한 애뜻하고 절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사랑’을 이용하여 제시문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사랑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에 대한 남녀의 기대가 달라서 동상이몽이 되기도 하고, 자아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을 유용한 가치로 변모시키며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주의나 자기애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현대 사회에서 유대와 소속감,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2번) 예시 답안

[나]는 사랑의 성격에는 준다라는 요소 외에도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호는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호에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이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 책임이 지배와 소유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존경이다. 또한 존경은 그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이 된다.

[다]는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한 것으로 죽은 할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과 슬픔이 드러나 있다. 할머니는 생전에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보고 싶더라도 참아내리라 다짐하였지만, 정작 할아버지의 무덤을 떠날 때에는 주저앉아 슬퍼하면서 죽은 할아버지를 연민하고 할아버지를 추억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 문제 2

###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설명하고 이를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및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3) 서양윤리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통합사회』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및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와 같은 요소들을 연계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 『고등학교 경제』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및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물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2) 생명과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와 관련된 사회 현상에 대해 논술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 □ 자료 출처

- [가] : 데카르트, 권혁 옮김(2019), 『방법서설』, 돌출새김, 18~19쪽.  
- 정창우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34쪽 관련.
- [나]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42쪽.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140쪽.

- [다] : 『내외경제TV』, 2021. 6. 11., 「가성비보다 가심비 선호하는 MZ세대, 소비 패턴도 스마트하게」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7~20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40~141쪽.

## □ 평가 기준

### ○ 문항 해설 1 (15점)

[가]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이라고 주장하는 데카르트의 글이다. 모든 인간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인 양식이나 이성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관심의 차이에 따라 의사 결정이 달라지므로 이성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경제 활동 주체인 인간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우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공적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사 결정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 조화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 채점 기준

- [가]의 인간 본성으로서의 이성과 관심의 차이에 따른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나]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 결정, 그리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사 결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 문항 해설 2 (15점)

[다]는 경제 주체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소개이다. [가]와 [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며, 이러한 의사 결정은 관심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관심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 패턴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성비 소비,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 등이 있다. 가성비 소비는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추구하는 소비이고, [다]의 두 번째 단락 이하를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윤리적 소비는 인간이나 동물, 환경 등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소비 운동으로, 여기에는 무차별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 공정 무역 등이 해당한다. 소비자가 가성비 소비만을 추구할 경우,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를 한다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에 나타난 이성과 관심의 차이에 따른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의 소비 행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가성비 소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이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7점을 부여함
- 윤리적 소비는 소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이성(Reason)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의 주체는 사고방식이나 관심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한다. 그들의 관심이 효율성에 있는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 조화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방식이나 관심의 차이에 따라 소비 행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성비 소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이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윤리적 소비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제품은 피하고 공정 무역과 업사이클링에 기반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및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및 (5) 경제생활과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5-02]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3) 생활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와 같은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
-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 (4)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영역의 성취기준 [12한지04-02]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도시권의 형성 및 확대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 (3) 국가와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3-03]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와 같은 요소들과 연계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82쪽.
- [나] : 한국은행(2021),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을 추이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93쪽 관련.
- OECD(2020), 한국 잠재 성장률 추이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05쪽 관련.
- 통계청(2019), 비정규직 근로 비중 현황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83쪽 관련.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70쪽 관련.
- 『연합뉴스』, 2021. 3. 29., 「[그래픽] 코로나19 영향 자영업자 매출 감소 현황」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80쪽 관련.
- 김진영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미래엔, 106쪽 관련.

○ [다] : 통계청(2018), 국내 지니계수 추이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관련.
- 통계청(2020), 2020년 1분기 소득 수준별 월평균 소득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관련.
- 보건사회연구원(2019), 『보건복지포럼』, 2019년 12월, 통권 제278호, 「포용복지와 건강 정책의 방향」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84쪽 관련.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33쪽 관련.
- 교육부(2020), 가구소득별 사교육 현황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9쪽 관련.
-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34쪽 관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85쪽 관련.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96쪽 관련.
- 통계청(2020), 자살 충동 여부 및 이유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51쪽 관련.

○ [라] : 『중앙일보』, 2021. 3. 27., 「“방안 가득 쓰레기·취업 책 남기고…” 취약한 2030 심리·물질적 고립 이충고」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관련.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55쪽 관련.
- 『한국일보』, 2021. 6. 9., 「헬리고 또 헬리고... 개발 광풍에 내쫓긴 노년의 눈물」
- 신정엽 외(2018), 『고등학교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113쪽 관련.
-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91쪽 관련.
- 『동아일보』, 2021. 4. 19., 「끓으며 버티는 청춘...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11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76쪽 관련.
- 『서울신문』, 2021. 3. 4., 「떠난 아들이 남긴 손주 보며 돈 없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 방구석에 갇힌 노년의 ‘忍生’」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11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85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의 관점에서 [나]가 원인이고, [다]가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정확히 설명하였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내용이 사회 불평등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임을 정확히 설명하고, [나]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다]의 소득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다시 [다]의 건강 격차, 사교육 격차, 정보화 격차, 자살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를 원인으로, [다]를 결과로 정확히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0점)

[라]에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의 사회 불평등 문제와 지속 가능 발전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 [라]에 나타난 빈곤, 소득 양극화, 공간 불평등,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청년 빈곤, 사회적 약자 등의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불균형 완화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복지 제도 마련, 장기 전세 주택 등의 활용을 통한 공간 불평등 해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의 평등 보장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약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질적 성장과 공정한 배분을 함께 추구하는 등의 지속 가능 발전 대책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사회 구성원 간의 희소가치 소유 정도 차이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경제 성장과 사회의 안정이 함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나]와 같이 최근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지속 가능 발전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와 같이 소득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 격차는 다시 건강 격차, 사교육 격차, 정보화 격차, 자살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악화시킨다.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청년 빈곤 등과 같은 소득 불균형 문제와 심리적 빈곤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장기 전세 주택 등의 공급을 통한 공간 불평등 해결, 빈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새로운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과 공정한 배분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